

무안 한·중산단 무산 위기

특수목적법인 청산절차 재개... 郡 “새 투자자 찾아 재추진”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 산단 조성사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절차 재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은 최근 서울에서 제3차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의 청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미래도시개발은 지난 2월 중국 측의 주도로 법인 청산을 의결했으나, 한달 뒤 열린 3월 주총에서는 청산을 보류했다.

당시 중국측은 특수목적 법인의 인적청산과 국내 지분 정리를 청산 보류의 단서 조항으로 제시했다.

중국측은 이번 주총에서 무안군 등의 국내 측의 참여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3명을 모두 중국 측 인사로 선임했다.

이는 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측이 청산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무안군은 법인의 청산 이후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산 절차 과정에서 드러날 법인의 잔존가치를 두고 기존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자산 430여억원으로 출범했던 법인이 현재 200여억원 규모로 축소된데다 청산에 들어가면 가치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돼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분에 대한 무안군을 상대로 하는 손해 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국내 투자자 철수와 규모 축소 등 우려곡절을 겪고 있는 무안 기

업도시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설지도 미지수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철수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과도한 가격을 요구해 지분정리가 지연됐으며,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내 투자자를 모색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법인 청산이 중국 측의 완전 철수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7월 국가지정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무안 기업도시는 이후 2009년 1월 한·중산단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당초 개발면적 17.7km에서 5km로 축소됐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야외 나비날리기 참여하세요”

함평 나비대축제 내일 개막...참여형 경제축제로

27일 개막하는 ‘제14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다양한 변화를 꾀한다.

함평군은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세계축제도시 선정을 위해 해외 축제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경제축제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야외 나비날리기’ 체험을 엑스포 공원에서 함평 천수변공원까지 확대해 생태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비날리기 횡수를 평일에는 오후 2시에, 공휴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관광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또 옛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농경 사회문화 체험장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선조들의 삶과 생활의 지혜를 살피고, 어른들에게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상태습지 공원에서 생활 유물을 전시하고 텃밭을 연출하는 한편 시골장독대를 조성하고 모내기 및 무자위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축제 일자별로 관람 포인트를 정해 관광객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오게 하는 임무를 부여해 각종 체험장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군은 축제 마지막 기간인 5월 7~8일 이틀간 세계 축제도시 선정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지난해 열린 제13회 나비축제.

광주·전남 올 마늘재배 늘고 양파 줄어

올해 광주·전남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양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9156ha로 지난해 7517ha보다 1585ha(20.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8278ha로 지난해 2만4356ha보다 17.7% 급증했다. 지역별 재배면적은 전남(9115ha), 경남(5725ha), 경북(4381ha), 제주(3016ha) 순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증가요인은 지난해 수확

기 가격상승과 10a당 소득증대로 재배면적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격상승은 재배면적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수입국인 중국의 작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흥과 신안 등 양파 주산지에서 마늘 재배로 전환하거나 흑마늘 진역과 환·분말 등 가공식품 수요 증가도 재배면적이 늘어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광주·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1만 841ha로 지난해 1만2333ha 보다 1492ha (12.1%) 감소했다. 전국 재

배면적은 2만9577ha로 2011년 2만 2976ha보다 8.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1만715ha), 경남(4493ha), 경북(2370ha), 전북(1361ha)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적 감소에도 올 조생종 양파가격은 4월 중순 kg당 1000원 이내로 지난해 11월 1700원대에 비해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호남통계청은 지난해 수확기 시장 가격 하락과 단위 면적당 낮은 소득으로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목포대 남악캠퍼스 교육지원센터 첫 삼

목포대학교는 최근 무안군 삼향읍 남악캠퍼스 신축부지에서 교육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목포대는 지난 2011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정부 비축토지 사용예약승인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사용승인된 토지 1만3750㎡에 교육지원센터를 오는 2013년 8월 완공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센터는 전남도청과 인접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과 동시에 녹색 전남을 이끌어갈 창업 지원 및 기술이전을 통한 고용창출 등 산·학 협력시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남악 캠퍼스에 전남 서남부권 평생학습 공동체 허브 구축을 비롯해 산학협력을 통한 고용 활성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등을 목표로 평생교육원, 평생 학습부와 지역협력 센터 등을 설치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나이팅게일 선서식

목포대학교 예비 간호사(간호학과 3년)들이 25일 박물관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갖고 있다. 선서식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게 해주는 촛불처럼 환자들을 섬길것을 다짐하는 다짐을 하는 의식이다. <목포대 제공>

전 북

산지전용 불법 허가 의혹 확대

전주지검 정읍지청, 부안군청 압수 수색

부안군청의 산지전용 허가 관련 불법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개발행위허가 불가능한 해당지역에 산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부안군청 환경녹지과와 해양수산과를 전격 압수 수색하고, A씨 등 직원 2명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로부터 “처음에는 허가 불가지역이라 허가를 거부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에 따라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해당 업무 관련부서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정읍지청은 지난해 6월 부안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B씨가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20억원의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받았다며, 민간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시각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s

군산 ‘풍당보리축제’ 내달 2~6일 개최

군산의 대표적인 농업축제인 ‘풍당보리축제’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군산시 미상동 주민센터 건너편 보리밭에서 열린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풍당보리축제는 농촌 경치와 체험을 접목한 도·농 상생 시민축제로, 흰쌀보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풀뿌리 축제다.

축제위원회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보리과종 체험 ▲풍당이와 떠나는 옛날 옛적에 ▲보리는 추억을 싣고 등을 축제 프로그램에 편성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경찰, 북한 이탈주민 찾아 위로

익산경찰서가 북한 이탈주민 세대의 신규 전입시 직접 방문해 위문하는 등 우리 사회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용식 서장과 신규범 보안협력위원장은 지난 24일 북한을 떠나고 지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 박모(47)씨를 찾아 축하 화분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 익산경찰이 북한 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물품 기

부행사에서 모은 주방용품 등 생필품 17종 26점과 쌀·라면·화장지 등 위문품, 사회단체에서 기부한 TV 받침대와 밥상, 한국화 등을 전달했다.

조용식 서장은 “앞으로 추가 물품 지원과 관공서·마트·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문화 체험과 의료 지원, 취업 알선 상담 등으로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풍년농사 위해 범씨파종 바쁜 손길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농부들이 풍년농사를 기원하면서 육묘상자에 범씨를 뿌리는 파종 작업에 한창이다. 범씨를 뿌린 후 씨가 트면 8~15일 후 못자리를 설치하고 다음달 말께 모내기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취재임금 사업장감독 위반 사법처리 통계 ‘아리송’ 고용부 실태조사 자료는 ‘1건’ 담당기관 익산지청에는 ‘0건’

고용노동부와 익산지청(지청장 이정조)간 최저 임금법 제11조(사업장 감독)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통계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제11조 사업장 감독 통계수치에는 ‘사법처리 건수가 1곳’으로 나타나 있지만, 익산지청은 ‘사법처리 건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익산지청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신고사건), 제11조(사업장 감독)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신고사건은 8개 업체에 12건 중에 ‘사법처리 10건’이고, 사업장 감독(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위반은 185개 업체에 191건 중에 ‘사법처리 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제11조 사업장 감독 위반 실태조사 자료에는 185개 사업장에 191건이고, 이 중에서 사법처리 된 건은 1건으로 돼 있다.

사업장 감독을 담당하는 익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익산지청간 통계수치가 틀릴 수가 없다”며 “제11

조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된 업체는 발견 되는 대로 고용노동부에 전산으로 보고해 집계처리 한다”고 말했다.

또 “익산지청에서 제11조 위반사건도 있지만 실태조사 한 결과 단 한 곳도 사법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에 주지 의무 통보를 해 모두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011년(4120원)보다 6% 오른 4580원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단 신

외국언론 전북 관광지 취재 잇따라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언론 취재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일본, 싱가포르, 유럽지역 등 외국언론 취재단이 전북 관광지를 다녀갔다.

26일부터는 전북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중국 연변TV

취재단 11명이 방문한다. 이들은 5월 2일까지 머물면서 남원 춘향제와 전주 한옥마을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홍보할 예정이다. 27일에는 김승수 정부부지사를 예방, 효과적인 전북지역 홍보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재정 조기집행 3월말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군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창출, 사랑 희망사업,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

업을 중점 관리하여 올해 대상사업 5417억원 중 3월 말까지 1888억원(34.8%)을 집행해 행정안전부 3월말 목표 30.5% 대비 4.3%p를 초과 달성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유명인과 만나는 지리산 들레길 걷기’

남원시는 29일 ‘유명인과 만나는 지리산 들레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걷기행사는 TV 드라마 ‘계백왕’에 출연한 탤런트 박성웅·신은정 부부와 함께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사리·곰취·버섯 등 지리산 일대에서 채

취한 나물 등으로 만든 지리산 산채 비빔밥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또 산수유 막걸리 체험행사와 유기농 튀밥 등 다양한 옛날식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 가족 한마당

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와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심평강 전북 소방본부장과 이근식 김제시장, 김현섭 도의원 등 24개대 대원과 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기술 경연 및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재현장 및 재난현장에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며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제시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